

## 위기의 병·의원

© 문닫는 병원들

# 개업 63 < 377 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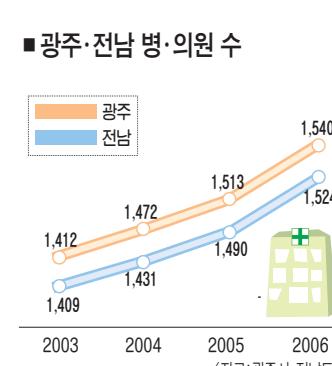
### 병·의원 포화… 무리한 개업·경영마인드 부재 위기 자초

광주·전남지역 병·의원들이 경영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매년 의사 수자와 병·의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 환자들은 '의료의 질'을 따지며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도 의사 등 의료인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광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A(42)씨는 최근 후배 B(39)씨로부터 "폐업한 병원을 경매 받아 정신과 전문병원을 개원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고민중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경영 또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고심 끝에 병이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의 개인병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후배의 동업 제의를 거절했다. A씨는 "요즘 의사들은 '개원을 하느라 차라리 월급의사를 하는 게 낫다'고 푸념한다"며 지역 의료시장의 열악상을 달랬다.

병·의원의 급증과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폐업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병·의원은 모두 3천64개소(광주 1천540개소·전남 1천524개소)이며, 의사 수자만도 4천7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 3천3개소



이 증가해 가뜩이나 좁은 지역 의료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인건비가 70~80% 가량 오른 것도 병원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사들의 경영마인드 부재도 지적되고 있다. 광주에서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할 경우 2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사들 대부분은 5~6명이 지분을 모아 전체 200억 가운데 20%~30%인 40억~50억 원 정도의 자본을 마련하고 나머지 150억 원 가량은 금융권 대출로 충당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연대보증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거나 건설사 등 다른 업체의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해 지분 분쟁을 겪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의원(내과·기준)도 개원에 만 3억~4억 원이 소요되지만,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통해 개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의사회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병원 수를 포함상태로 여기는 의사들이 많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일기자 cki@

에 비해 63개소가 늘어난 수치이다. 2003년(2천821개소)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250여 개소나 늘어난 것이다.(표)

반면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377개의 병·의원이 폐업했다. 지난해 신규 개원이 63개소인 것과 비교해 보면 문을 여는 병원보다 문을 닫는 병원 수가 훨씬 많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인구는 매년 저자리걸음을 하거나 줄고 있는 반면, 병원 수와 의사 수는 꾸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하기 위해 19일부터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자전거로 순회하며 홍보하는 사이클 행렬이 박준영 지사를 선두로 전남도 청 정문을 출발하고 있다.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은 오는 26일까지 전남 전역을 돌며 주민들의 박람회 지지 서명을 받는다.

/위성경기자 jwi@

### 사이클 순례단 26일까지 22개 시·군 돌며 서명운동



새봄을 맞는 남도의 길목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열망하는 은둔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광주일보와 전남도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오는 26

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벌이는 사이클 릴레이 홍보 첫날인 19일 목포~신안~영암~해남에서 지역주민들의 박람회 유치기원 서명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3면

국민생활체육 전남자전거연합회원 40명으로 구성된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은 이날 오전 10시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4개 시·군을 돌며 지역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관련기사 3면

릴레이 홍보단이 도착한 시군청사 앞 광장에는 단체장과 공무원, 지역

기관장, 주민 등이 마중나와 지역발전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한마음으로 서명했다. 사이클 릴레이 홍보 이틀째인 20일 오전 9시 30분 진도군청앞 광장을 시작으로 오후 1시 완도군청, 오후 3시 30분 강진군청, 오후 5시 장흥군청 앞 광장에서 각각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손학규 한나라 탈당

### "낡은 수구·무능 좌파 깨야"… 중도·제3세력 규합 나설듯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결국 경선 불참과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일단 여권행은 부인했지만 향후 정계개편을 통해 중도개혁 성향의 제3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로 전개되던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19일 손 전 지사는 서울 용산 백화점

기념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그동안 내가 지니고 있던 모든 가능성과 기득권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며 "오늘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짙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 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탈당 배경에 대해 손 전 지사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 자신을 던져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는 데

한 일의 밀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새로운 창당을 포함해 모든 정치세력이 미래와 선진화를 향해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무능한 진보와 수구 보수가 판치는 낡은 정치구조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미래, 평화, 통합의 시대를 경영할 창조적 주도세력을 민드는 데 자신을 던져 대한민국 드



## 北핵시설 조기 불능화 협의

### 6자회담 개막… 美, BDA자금 전액 반환

미국은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9월 이후 6자회담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BDA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2·13 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이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맡는 회사 사람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KUKIE 국제약품

<http://www.kukiepharm.co.kr>